

업그레이드 me

취업컨설턴트 남택문씨가 말하는 성공취업 전략



실업자 100만명 시대라고 불릴만큼 고용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실제 공공기관과 대기업은 신규채용을 거의 중단했고 대기업들도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일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도 유례없는 취업난이 예상된다. 문제의 심각성은 통계상으로도 드러난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실업률은 4.7%(3만3천명)로 전년보다 0.6% 상승했다. 전남은 1.2%(1만2천명)다.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광주의 경우 청년층 실업자수는 1만명으로 7.8%에 달한다. 전남도 4.9%(5천명)로 전체 실업률의 4배나 된다. 실업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만도 광주·전남에서 연간 164억3천200만원(1만9천960명)이나 지급됐다. 취업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장벽 또한 높기만 하다.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으로 넘어야 하나? 전문가들은 취업 성공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지, 광주종합고용센터 책임상담원인 취업컨설턴트 남택문 씨로부터 '성공 취업 전략'을 들어봤다.

8%에 달한다. 전남도 4.9%(5천명)로 전체 실업률의 4배나 된다. 실업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만도 광주·전남에서 연간 164억3천200만원(1만9천960명)이나 지급됐다. 취업을 생각하면 막막하다. 장벽 또한 높기만 하다.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으로 넘어야 하나? 전문가들은 취업 성공에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성취해야 하는지, 광주종합고용센터 책임상담원인 취업컨설턴트 남택문 씨로부터 '성공 취업 전략'을 들어봤다.

'스펙' 쌓기 앞서 '직업 흥미' 분석부터

#1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면 주위의 환경·조건·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힘이 생겨나고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래서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다.

#2 비전을 품어라

외부의 여러 조건들보다 30년 후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혹은 어떻게 살 것인지가 그려져야 한다. 거시적인 계획과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로 탐색과 계획이 필요하다. 터를 잘 닦은 토대 위에 세운 건물만이 아무리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는 것이다.

#3 눈높이를 조절하라

고용시장이 어렵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구직자 스스로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그러다 보니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자그마한 어려운 일에도 흔들리고, 이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자신으로부터 찾기보다는 외부의 환경 탓으로 돌린다. 무작정 눈높이를 낮추고 주위의 시선 때문에 일단 취업하고 보자는 일념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다. 취업은 삶이다.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사고가 먼저다. 그래서 긴 안목과 희망을 키우는 '눈높이 조절'을 잘해야 한다.

#4 주위의 눈과 귀도 빌려라

대다수 구직자들은 온라인 상의 정보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반쪽만의 구직활동이다. 요즘 기업체들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시채용을 한다. 그러다보니 좋은 일자리를 주위의 추천을 통해 능력이 검증된 구직자를 채용하는 게 일반화되고 있다. 그래서 구직자는 누구보다도 눈과 귀를 활짝 열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눈과 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찾고자 하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5 스펙(학점·자격증) 보다 직업 흥미 분석이 먼저다

직업 선택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와 직업세계를 이해해야 한다.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자신의 흥미·성격·적성·가치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구직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취업에 필요한 SPEC(학점, 자격증 및 면허증, 외국어능력, 해외연수, 공모전 수상내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취업을 결정하는 요소는 스펙 뿐만이 아니다. 근로자로서 자신은 어떤 직업 흥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고용시장이 급변할수록 직업 흥미를 분석하는 게 스펙보다 중요하다.

#6 이력서는 얼굴이다

수많은 구직자의 이력서를 접하다보면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많다. 자신의 얼굴임에도 구겨서 가지고 오는 구직자, 전혀 꾸미지 않고 맨 얼굴로 오는 구직자, 자신의 얼굴 가운데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구직자 등 무덤덤한 이력서가 많다. 이력서를 포함한 서류는 구직자의 첫인상을 결정한다. 그래서 맞선을 볼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신경을 쓰듯 서류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예쁘거나 멋진 사람이 옆을 지나치면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돌아간다. 이력서를 보자마자 인사담당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7 자신감을 가져라

인간은 누구나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구직자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린다. 죽음 등 한계상황을 제외하고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못할 일은 거의 없다. 구직자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올바른 진로 탐색과 구직기술 향상에 매진한다면 가치를 필요로 하는 구인자, 즉 기업체는 많다는 것을 명심하자.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성공 취업의 핵심 전략이다. 지난달 열린 취업박람회에서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직업 흥미 체크리스트

R(현실)형, 경찰관·요리사·군인  
S(사회)형, 성직자·교사·간호사  
E(진취)형, 정치인·사업가·기자

직업심리학자 홀랜드가 구분한 6가지 직업 흥미 체크리스트다. 합산 결과 숫자가 가장 높은 영역에 흥미가 있다고 보면 된다. 광주종합고용센터 남택문 책임상담원의 도움으로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냈다. ①R(Realistic)형=현실형 또는 현장형이다. 실행적이며 기계적 적성이 높다. 경찰관, 운동코치, 항공기 조종사, 토목 공학자, 요리사, 동물 사육사, 군인 같은 직업이 잘 어울린다. ②I(Investigative)형=탐구형으로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다. 물리학자, 수학자, 심리학자, 의사, 약사, 과학 교사, 사설탐정가, 기상 관측사 같은 직업이 여기에 속한다. ③A(Artistic)형=예술형으로 감수성이 강하고 자유분방하다. 순수 예술가, 사진가, 작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광고 기획자, 무대감독, 방송 연출가, 만화가, 프로그래머,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이 어울린다. ④S(Social)형=사회형으로 이해심이 많고 봉사적이다. 교육학자, 사회사업가, 성직자, 상담심리사, 교사, 언어치료사, 레크리에이션 강사, 간호사, 유치원 교사, 직업상담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⑤E(Enterprising)형=진취형으로 열성적이며 통솔력이 있고 야심적이다. 정치인, 사업가, 변호사, 기자, 공장고, 국제회의 전문가, 상품 판매원, 레스토랑 관리자, 이벤트 전문가가 어울린다. ⑥C(Conventional)형=관습형 또는 사무형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빈틈이 없다. 공무원, 공인 회계사, 의료기술자, 은행원, 도서관 사서, 박물관 안내원, 비서, 홍보담당자, 운동선수 매니저 등의 직업이 여기에 속한다.

직업 흥미 체크리스트

Table with 6 columns (R, I, A, S, E, C) and 5 rows (1-5) for each, plus a total column. Includes instructions: '성령을 잘 읽고 좋아하는 정도에 V표시 합니다. (5로 갈수록 더 많이 좋아하는 것임)'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방수와 단일이 하나로' (Waterproofing and single unit for one). Includes contact info for 'IPMSO 노크서비스' and 'www.kwango.com'.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Gul-dang in Gyeokrakjeon). Includes contact info for 'www.kwango.com' and phone numbers: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